

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의 제2권(영문판)의 하나님-세계, 하나님-인간의 구도는 예컨대 언약의 관점을 전제로 하나님-인간-세계 등의 더 나은 방식으로서의 조정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조정으로도 언약의 본질과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적인 언약 연구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부분적이다. 비록 언약의 제반 측면과 내용에 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좀 더 통합적인 틀과의 관련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약은 성경해석의 거시적인 틀(macro-frame)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방법론 제안

송병주 (신대원 1년)

1.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라는 사회적 대격변기를 겪으며, 불의한 국가 권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 인가는 문제로 상당한 진통과 함께 시대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자기 입장의 정리는 상실한 채 그저 “사회 참여해야지!”하는 막연한 종교적 재 관념만 형성하고 말았다. 그것도 사회 참여의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균형”이란 명목으로 “혁명만이 변화인가?”하는 식의 구호로 사회참여를 조심해야 할 이유와 부정적인 조건만을 남발하여 변혁의 실천 의지를 소비하고 말았다.

더구나 사회적 보수화라는 거센 시대적 주류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민 소득, 그리고 동구권의 몰락 이후 운동권의 비신화와 맞물려 문민 대통령의 선출 이후 그를 통한 개혁의 조치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수화의 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개혁 조차 사회적 보수화의 책동으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량적인

개혁 열풍의 수용을 통해 국민 대중의 사회 변혁 의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결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런 사회 현상의 덕택에 사회 참여라는 콤플렉스를 벗고 더욱 정치적 보수화를 돈독히 하는 전기를 맞았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구축된 토대를 기초로 적절한 다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 운동과 선지자적인 Radical Discipleship이 아닌 중산층적, 소시민적 정치 참여만으로 일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사회 참여라는 콤플렉스에 대한 반작용 같은 해외 선교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띠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대간의 변혁기에 대한 우리의 불분명했던 입장의 원인을 분석하여 2000년대의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사회적 보수화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회피한다면, 곧 닥칠 사회 변혁기에 우리는 치명적인 표류를 하고 말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상의 관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참여(Political involvement)”의 당위성만을 논하는 소모전 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한국 정치, 경제의 모순과 불의의 원인을 밝히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단순히 쿠데타 정부에 의한 군부 독재, 반 민주 세력에 의한 불의로 볼 수 없다. 단순히 권선징악, 선과 악이란 윤리적 의미의 접근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냉전이라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이 구도를 충실히 실행해 줄 강력한(?) 정권을 필요로 하는 외세, 민족적 분단이라는 고리로 유지시켜온 안보 독재와 개발 독재라는 정치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 사회 참여의 바른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탈냉전의 시대이다. 그래서 이상의 방법론 접근은 부적

절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냉전의 모순을 아직도 안고 있다. 그러므로 탈냉전을 향한 참여적 노력은 우리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문헌 연구와 연구 방법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다룬 서적들은 상당수가 출간되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중심으로 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상당한 판매를 기록했다. 로잔 언약과 휘튼 언약 이후 복음주의 계열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심이 세계적 관점에서 의회주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어 제3세계로서의 참여론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다. 주로 권선징악적, 중산층적 정치의식에 기초한 경향이 짙다.

반면 진보적 기독교 운동 계열들은 기독교 운동의 특수성을 상실한 채 운동 허무주의에 매몰되어 역시 또다른 편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운동을 위한 지나친 교의학적 재구성이 필자로 하여금 그 방법론에 동의하기 어렵게 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위한 보다 큰 실천성을 담보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복음과 상황」은 좋은 도움이 되었고,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양자의 편향성을 넘어 사회 참여에 대해 충분한 사회학적 분석을 수용하되 방법론의 적용은 개혁주의적 윤리의 기준¹⁾으로 검증하려 했다.

1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의의 발생의 원인과 그것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 2장에서는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제국주의의 극복과 탈냉전, 그리고 참여를 향한 신학적 과제로 통일 지향을 제안했다. 그

1.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다. 필자는 나스와 베자 그리고 바빙크의 사회참여에 대한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낙홍 교수 · 의 “한국 장로교와 개혁주의 사회 윤리”를 참조하라.

리고 3장에서는 두 번째 제안으로 불의한 구조 속에 발생하는 비천한 자들을 복음주의가 어떻게 수용하며 신학적 과제로 삼아야 할지를 논했다.

본 논제를 제안으로서 제시한 것은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각론적인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여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1장 종속화와 개발 독재 그리고 분단

최근 세계 은행(The World Bank)은 개발국과 저개발국을 국가단위의 연평균 수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하여 그 척도에 따라 중도국 중 10개의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신생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NICS)라고 부르고 있다. 이 중에 아시아권에 속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이며 “아시아의 4개의 NICS 깡단”(The Gang of Four NICS)이란 별명까지 붙이고 있다²⁾.

중도 산업국인 한국은 1960년대 이래로 경제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막대한 외채와 정치 경제의 불안정, 종속적 상황은 70년대와 80년대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 구성체의 지속적인 모순 구조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이념적 분단은 이 모순 구조를 더욱 심화, 은폐 시킴으로 통일과 민주화를 향한 변혁의 요구를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다.

1. 개발 독재의 발생과 종속화의 문제

한국 개발 은행은 한국 산업화의 특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

2. Norman Birnbaum, The Crisis do Industrial Society, London Oxford Uni Press, 1970, P. 113.

설명하고 있다.³⁾

첫째, 자본 형성과 급속한 수출 성장을 위한 고도의 투자

둘째, 투자 자본의 무리없는 확보와 유효한 배정

셋째, 관리 경영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인력과 두뇌

넷째, 한국 산업을 다양화 할 수 있었던 기술력

다섯째,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정책

여섯째, 경제 개발을 위한 열의있는 단합과 참여, 그리고 이를 가능케한 정치적 안정

하지만 위의 설명들으로써는 오히려 파생되는 문제점들, 즉 외채의 급증과 외국 금융의 한국 시장 점유, 기술의 해외 의존도, 또는 종속, 정치적 억압과 군사 독재, 그리고 근로 대중의 착취 등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타자와 요코는 냉전 시대 아시아의 지정학적 변수로 경제 성장의 요인과 문제점을 들고 있다.⁴⁾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해보았지만, 한국과 베트남에서 실패하였다. 그 결과 1972년 파리 회담 이후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면서 미·소 냉전 구도 안에서 아시아가 차지했던 지정학적 구도보다 인도양 특히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미국이 보기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위협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 즉 ‘빈곤’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빈곤의 근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과 미군의 군사력 및 자본의 지원을 통해 경제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은 그 기반을 보장 받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외세에 의한 종속을 초

3. The Korea of Development Bank, Industry in Korea, PP. 18-23.

4. 기타자와 요코, 탈냉전 시대의 아시아의 현실, 기독교 사상 412호, 1993, PP. 163-165.

래했고, 그 덕에 개발 독재는 또한 유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기형적 경제 구조와 경쟁력을 행한 싼 임금, 그리고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잠재된 위험성 속에서도 가시적 성장을 제공해 왔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의 개발은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강요받았고, 값싼 노동력과 냉전 속의 특혜와 적절한 수준의 기술 도입, 그리고 일본 및 서구 은행의 적극적 차관 지원 속에 엄청난 성장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⁵⁾ 결국 냉전의 구도는 개발 독재를 생산하고 양자의 이해 관계가 잘 결합되어 한국 사회의 구조악은 확대 재생산 된 것이다.

2. 안보 독재와 분단

한국의 상황은 다른 아시아의 국가와 다르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지녔다. 분단이란 한국의 특수성은 이상의 모순 구조를 더욱 강화시켰다. 분단에 의한 안보 이데올로기는 외세에 지원받고 종속된 모든 독재정권(이것은 남과 북이 동일하다)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게다가 안보 우선 순위의 논리는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저항도 적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어 더욱 독재를 강화하게 되었다.⁶⁾ 결국 한국의 독재는 경제 개발과 외세와 분단이란 삼두마차를 기반으로 지칠 줄 모르는 패역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다.

3. 한국 교회의 실패와 평가

이상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냉전 구도에 의한 외세적 종속화로 강요된 경제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과 너무 쉽게 동일시 해버렸다. 오히려 그 속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억압과 독재, 근로 대중의 착취와 또 다른 식민지화와 종속화를 너무 쉽게 간과해 버렸다. 더구나 수입 신학의 한계를 한국의 분단 상황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냉전에 입

5. Ibid., P. 116.

6. 김성재, 분단 현실과 기독교 민중 교육, 서울:한국신학연구소, P. 280.

각한 미국 신학의 눈으로 이해하여 더욱 이데올로기화 해버렸다. 결과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경제 종속화와 하나님의 축복, 정치적 안정과 독재기반 강화, 분단 고착화와 민주화의 긴장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 대중의 박탈보상감을 너무나 쉽게 내세화 시키고 말았다.⁷⁾ 결과 한국 교회는 경제 제일주의, 안보 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성경적 경제 정의의 실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은 포기한 채, 경제 성장과 독재, 그리고 분단 고착화에 이용 당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⁸⁾ 이처럼 한국 사회의 구조악은 단순히 인간의 성품과 개인적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기초로 특별히 분단 상황을 이용한 외세와 군사 독재의 사생아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보다 나은 사회를 행한 국민의 애국적 희생을 상쇄시켜 버렸고 결국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를 심화시키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냉전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 아직도 그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한 참여적 메시지를 더욱 구체화 해야 한다.

2장 제언1. 종속화에 저항하는 참여

1. 이원론과 제국주의의 극복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이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고 세계를 다스릴 권위를 위임해 주셨고,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는 책임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상속자이다.⁹⁾ 성경의 세계관이

7. 이원규, 한국 교회와 사회, 서울:나단, 1991, P. 110.

8. 이것에 대해선 “다시 써야할 한국 기독교회사”(풀빛목회, 1994년)를 보라.

9. 갈 4:6-7, 고전 15:35-49, 고전 15:12-19.

은 수준까지 진전되었다. 물론 미국에 의한 정치, 군사적 해게모니는 관찰되고 있지만, 현재의 세계 질서는 세계 경제의 형식적 통합에 기초한 단극 체제가 무너지고 지역주의를 중심축으로 하여 3극이 정립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¹⁴⁾

2) 경제 패권주의의 횡포

냉전 구도가 사라지고 경제 패권주의가 확대되는 지금, 신흥 공업국가들은 큰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후진국들과의 무역에서 상호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라 불리는 GATT 협상은 무차별적 상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냉전이 사라져가는 지금 민족 이기주의와 결합하여 경제 패권주의의 횡포는 심화되고 있다.¹⁵⁾ 냉전의 구도 속에 강요된 성장, 더구나 기술과 자본, 원료에 있어 대외 종속적인 경제 구조화가 되어버린 지금, 냉전의 특혜없는 상호주의는 한국과 신흥 공업국가들에겐 치명적인 공격이 되고 있다. 백종국 교수는 최근의 경제 패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우려하며 신식민지화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¹⁶⁾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1986년에서 90년 사이는 평균 10.8%였는데, 1990년에는 9%, 92년에는 3.1%로 떨어졌다.¹⁷⁾ 이런 현상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것은 외부에 의해 강요된 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외부 모순과 개발 독재가 낳은 내부 모순이 결합 증폭된 결과이다.¹⁸⁾ 이제 우리는 냉전의 특혜는 상실되고 냉전의 모순만

을 안고있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냉전에 의한 성장 자체가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함이었다, 냉전이 사라진 지금 상호주의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한다.

3) 탈냉전과 열린 민족주의

기독교 신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이것들은 상대적 이념이기에 기독교 신앙이 어느 하나의 이념을 절대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자본주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¹⁹⁾ 냉전은 우리에게 종속을 초래했고,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에 따라 개발 독재와 안보 독재가 유지되었고, 교회는 분명한 입장에서 서지 못했다. 아직도 냉전의 모순이 내·외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지금은, 동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하고, 친미화를 극복하여 바른 민주화와 민족 자주, 그리고 통일을 지향할 때라 본다. 사실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다 더 큰 수난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당했다. 6. 25 당시에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도 동일하게 받았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철천지 원수인지 알수가 없다. 체험이 갖는 주관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조작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사 독재 정부는 일본과의 유착 관계 때문에 일제에 대한 적대감은 극복하도록 정치적으로 조작하였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분단체제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심화시킨 것이다.²⁰⁾

이제 한국 기독교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넘어서서²¹⁾ 그것에 의해 고착된 분단과 정치적 독재를 직시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 소아병적 통일 집착증에만 몰입되어선 안 될 것이다.²²⁾ 한국 기독교는 냉전의 그늘 속에 소외되었던 집단을 범교회적 과제로 삼아야 하며, 민족 통일을 향한 열린 민족주의의 심자기를 저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14. 정태인, 세계 경제의 변화와 민족 경제, 복음과 상황, 1993년 3월, P. 149.

15. 백종국, 경제제일주의로의 세계질서 재편과 한국 기독교인의 소명, 기독교 사상 409호, 1993, P. 233.

16. 백종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서울:IVP, 1994, PP. 57-58.

17. 정윤형, 강만길, 성건호 편저, 경제학에서의 민족주의적 지향, 한국 민족주의론, 서울:형상사, 1993, P. 276.

18. 카타자와 요코, 탈냉전시대의 아시아의 현실, P. 168.

19. 김성재, 분단 현실과 기독교 민중 교육, P. 41.

20. Ibid., P. 295.

21. 백종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P. 97.

22. Ibid., PP. 86-87.

대해 자신을 객관화하여 열린 민족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성장이 둔화되었다. 통일은 이것에 대해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통일은 둔화된 한국 교회의 성장 촉매가 되며 다시 한 번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극복 못한 채 제국주의적 북한 선교에 몰입할 경우, 그것은 자본주의의 triumphalism이지 선교는 아닐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종파 분열과 이단의 활동, 평양 신학교의 정통성 싸움 끝에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 있다. 통일을 향한 이론적, 감정적, 객관화되어 다지기를 더 이상 외면 한다면, 통일은 흥역일 뿐이다. 한국 교회는 통일을 향한 한계 극복과 대안 창출을 당면한 참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탈냉전을 직시하고 미국에 대해 객관화 하는 한편, 통일을 향한 분명한 참여를 시도해야 한다.

3장 제안2. 비천한 자들을 향한 참여

불의한 국가권력은 국민대중을 억압자와 피억압자, 기득권층과 소외 받는 계층으로 양분하게 한다. 그리고 이 양분은 계층간 또는 계급간의 갈등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적 영역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선택이 불가피해진다. 이럴 때 교회의 온전한 자리매김은 무엇인가?

1) 비참한 자들을 향한 바른 이해

흑인 해방 신학자이면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제임스 코운은 그의 저서 「God do the Oppressed」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교회의 신학자들은(루터, 칼빈, 웨슬레 등) 거룩한 계시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억눌린 자들의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주제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철학과 다른 문화적 가치들에 의해서 규정 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적 윤리를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한 행위로서 해석해 오지 못했다. 그들이 당시의 상황에 의해 제한 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틀렸던 것이다.”²³⁾

그는 또한 복음주의 또한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는 성경적 주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눌린 자들의 편이신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3-7).

이 외에도 성경의 예는 충분히 이를 보증한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 로날드 사이더는, 우리의 신학에 있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편이라는 중요한 성경적 과제를 간파해 온 것은 단순히 윤리적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이단적이다”²⁴⁾고 하며 매우 과격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단순히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라 해서 절대시 되고 신성시 되어야 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로날드 사이더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이라고 할 때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물질적 가난이 성경적 이상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단지 억눌리고 가난하다해서 이

23. J. H. Cone, God of the oppressed, New York:Seabury 1975, PP. 199-200.
24. 로날드 사이더의 이 입장은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ETS)」 13차 연례 회의시 제출된 An Evangelical Theology of Liberation에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IVP에서 정식 출간되지 않고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등사되어 배급되어 있다. 민중과 교회, P. 33.

상화 되어지고, 해방 신학자들의 논리처럼 자동적으로 교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세계,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되었선 안된다는 것이다.²⁵⁾ 이상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학함의 중요한 과제로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볼 수 있다.

2) 비천한 자들을 향한 원칙적 편애

교회는 오직 지배 세력과 갈등하게 될 때는 사회적 지배 형태에 강하게 대립하여 피침략자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²⁶⁾ 하지만 내적 지배 세력과의 갈등에서는 상당히 미묘해진다.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 사회학자 오토 마두로는 내적 지배 세력과의 갈등 시에는 교회 안에 지배자와 종속자가 공존하고 있고, 지배 계급은 그 헤게모니 전략으로 종교를 편입시키려 하므로 대체로 교회는 불의한 권력과 갈등하기가 어렵지만, 또한 동시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²⁷⁾ 그 반대 급부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⁸⁾

우리가 이상의 사회학적 고찰을 차치하고서라도 성경을 통해 비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전략에 편입되는 상황이 설사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비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편애하지 않을 수 없다.

칼 바르트는 “개혁 정치는 사회적 억압에 맞서서 저항하는 임무를

25. Ibid.

26. 이것의 실례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27. 특정한 사회 상황아래서 기독교의 혁명적 잠재성이 신학적으로 정립되고 중앙권력과의 결속이 약화되며 사회적 조건이 지나친 편향을 낳게 될 때 종교적 실천, 가르침과 제도는 강한 변혁 지향성을 띤다.

28. 오토 마두로,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 한국 신학연구소, 1988, PP. 208-209, 235-236.

찾는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불신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며 또한 이 세계의 ‘비천한 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편애하는 것”²⁹⁾이 “그리스도교는 비천한 자들을 확실히 당파적으로 더 사랑해야 한다”³⁰⁾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평면적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받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특정 대상에게 과잉 부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과 정의 개념을 바로 정립한다면, 이런 오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정의는 처벌만이 아니다. 구약은 이를 구원의 의미에서도 사용한다. 양낙홍 교수는 사랑과 정의를 논함에 있어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정의에는 징벌적 정의(Punitive Justice)와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가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억압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징벌적 정의의 행위이지만, 외로운 피억압자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³¹⁾ 즉 정의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수단인 것이다. 물론 증오와 복수심, 계급적개심을 동반한 정의는 성경적 정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편애를 말함은 선택과 유기를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절대적 사랑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다. 그렇기에 외로운 피억압자들에게는 그것이 편애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파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동은 우리의 과제가 된다.

3)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세계내적 목표의 설정

칼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목표와 정치적 실천의 세계내적, 상대적인 적극적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³²⁾ 이것은 하나

29. 칼 바르트, 로마서 주석 II, 1922, P. 446.

30. Ibid., P. 448.

31. 양낙홍, 복음과 상황, 「사랑과 정의」, 1993, P. 10.

32. 유리히 단네만, 이신건 역, 칼 바르트의 정치신학, 한국신학연구소,

님 나라와 세속 사회간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기초한다. 양자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며 그 관계는 매우 소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볼 때 우리는 양자간에 긍정성이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³³⁾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에 있어 하나님은 그 왕국을 세속 권력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세계내적 목표 설정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속 사회를 지나치게 단절시켜 초월적 세계로 환원시켜 버린다. 마지막 목표에 대한 기계적 감상으로 역사의 실제적 과정과 진보를 무시한 채 수동적 자세만을 고집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세계를 갱신하는 행동을 상쇄시켜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당론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내적 목표를 위해 양자간 긴장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내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문제이다.³⁴⁾ 즉 공산주의·사회주의·자본주의 중 택일하는 것이 세계내적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체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소외와 물화가 더이상 지배하지 않는 사회 질서의 수립이 목표란 것이다. 사실 많은 민중 해방 신학자들은 여기서 너무 쉬운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 비천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외치다가 너무도 쉽게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우리는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체제는 기독교인의 변혁 대상이고,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소외와 물화의 지배는 우리와 영원히 불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목표와 세계내적 목표의 긴장과 조화는 기독교인의 영원한 추동력이고 그렇기에 어

1991, P. 93.

33. 잭크 엘룰,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를 읽어보라.

34. 리차드 이틀론, 브라이언 말퀴 공저,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PP. 108-111.

떠한 선지자적 딜레마도 해체 될 수밖에 없으며, 더이상 기독교인은 불의한 권력 앞에 회의론자가 될 수 없다.

결론

지금까지 사회 참여를 향한 각론적 제안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좀 더 선명한 용어의 사용은 제한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 한계라 생각하고 보다 깊은 논의를 제안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사회 참여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권선징악적, 윤리적 접근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불의를 생산하게 되는 정치적, 경제적 토대를 검증하는 가운데 그 모순 구조를 찾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과 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악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 불의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 대립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이는 분단의 고착화란 비인간화를 초래했고, 개발 독재와 안보 독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를 간과함으로써 시대를 향한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이원론적 폐해의 극대화가 제국주의라 한다면, 분단 고착화와 독재를 초래하는 탈냉전과 제국주의 극복을 위한 열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 운동은 기독교 운동의 참여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상의 불의한 구조에 의해 파생된 비천에 처해진 자들을 참여와 수용의 자세로 삼고 그들을 향한 원칙적 편애를 실시해야 한다. 이 사랑의 실천이 사회적 정의로 외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내적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특별히 불의한 권위에 의해 비천해진 자들을 향한 사랑은 기

독 운동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세대 가운데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불의와 억압 앞에 침묵해 왔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잘못이요 신학적인 잘못이었다. 우리의 신학의 과제는 교회 성장(CHURCH GROWTH)이었고, 정치 참여(POLITICAL INVOLVEMENT)는 고의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더구나 기득권층의 헤게모니 전략에 편입되어 눌린 자들을 향해 분명히 서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신학적 자성을 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대학가의 4%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오는 통일 한국을 향한 변혁기를 앞두고 참여를 향한 더 많은 논의를 제안한다. 한국 기독교의 쓴 뿌리, 사회 참여 콤플렉스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정용균 (신대원 3년)

서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일러 우리는 장애인(障碍人)이라 한다.

사람은 모두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비장애인)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지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지난 세월 사회의 편견과 멸시라는 멍에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장애인은 늘 '사회의 소외자'였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주변의 여러 모습에서 보게 된다.¹⁾

1) 장애인 기관(복지 시설이나 특수 학교)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번번이 겪게 되는 지역 주민의 반대는,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깊